“예쁘고 깜찍하네”…르노삼성 ‘트위지’ 타 보니

초소형 전기차의 유혹 “얼리어답터 모여라”

최고속도 80km/h…주행·코너링 안정적
보조금 받으면 최저 422만원 구매 가능

유지비 최저수준…배달용·도심형 최적화
에어컨·공조장치 없어 여름·겨울엔 불편

르노삼성, 트위지 주요 제원

배터리형식	리튬 이온
정격전압 (전류용량)	52.5V (129Ah)
최고출력 (ps/rpm)	17.1 (12.6kw)
최대토크 (kg.m/rpm)	5.8
에너지소비효율	7.9km/kWh (도심 8.8km/kWh, 고속도로 7km/kWh)
1회 충전 주행거리	55km
배터리 정격전압	129V (52.5Ah)
공차중량	475.5kg

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는 1500만원이다. 2017년 환경부 보조금 578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최저 42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자동차

‘새로운 일상을 꿈꾸는 얼리어답터들의 선택’

시승을 위해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E)를 본 순간, 첫 느낌은 자동차가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드론, 카메라와 마주한 것 같았다.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은 그 자체만으로 상쾌한 느낌이다.

일단 가격부터 알고 가자. 기존에 없던 이 새로운 초소형 전기차는 1500만원이다. 비싼걸 누가 살까 싶지만, 보조금 찬스가 있다. 2017년 환경부 보조금 578만원과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지자체별로 상이)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최저 42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상당히 현실적이며, 도전해볼 가격대여서 1차부터 3차까지 물량 1500대가 순식간에 동났고, 추가 수입 물량을 기다리는 예비 구매자들도 줄을 선 상태다. 어떤 매력과 단점이 있을지, 트위지를 시승해봤다.

●작은 차체의 뛰어난 기동성

트위지의 차폭은 1.2m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반 차량으로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골목과 장애물 사이를 너끈히 통과한다. 기동성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차장 한 칸에 트위지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크기(전장 2335mm, 전폭 1,233mm, 전고 1,451mm)다. 2인승이지만 뒷좌석은 너무 비좁아 성인이 타기는 어렵다. 공차중량도 450kg에 불과하다.

성능은 일반 도로 주행은 충분하다. 원래 창문이 없어서 ‘이 차는 뭐지?’하는 주위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가속시 전기 소음이 조금 크다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말이다.

걸윙 도어 방식이라 문이 위로 열린다. 오리지널 모델은 창문이 없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해 르노삼성차에서 별도의 비닐 창문을 개발해 달았다. 이마저 없으면 정말 바이크를 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일반 도심 주행에는 충분한 성능

전기모터의 최고 출력은 14kW, 최대토크는 57Nm이다. 최고 속도는 80km/h이며, 6.1초 만에 0->45km/h에 도달한다. 초소형이지만 나름 고급차에 적용되는 후륜구동 방식이어서 승차감과 코너링은 안정적이며 충분한 재미를 준다.

작다고 성능을 무시할 수 없는 건 트위지의 모터 성능이 르노 F1(포뮬러원)팀의 기술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F1 머신에 적용되는 KERS(키네틱 에너지 회수 시스템)의 개발 경험을 갖춘 팀들이 만들어 반응 속도와 기본 주행 성능이 매우 탄탄하다.

계기판은 심플하다. 배터리 잔량, 변속기 표시등, 속도, 시간, 순간 에너지 소비 및 재충전 상황 등이 표시되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속도와 배터리 잔량만 확인하며 타면 될 정도로 간단한 구조다.

변속기도 간단하다. 버튼 형식이며 주행(D), 중립(N), 후진(R) 세 가지로 나뉜다. D를 누르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르륵 앞으로 나간다.

가속페달은 민감하지 않게 세팅했다. 어느 정도 압력으로 밟아도 차가 훅 튀어나가거나 하지는 않아서 운전하기 편하다.

실제 운전을 해보면 50~60km/h까지는 다소 느리더라도 가속이 쭉 되지만, 그 이상의 속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이정도면 시내 주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에어컨의 부재다. 솔직하게 말해 한 여름이나 겨울에 이 차를 배달영업용으로 쓴다면 말리고 싶다. 공조장치가 없다보니 당연히 히터도 나오지 않는다. 도어를 여닫는 것도 일반 차에 비해 꽤 번거로운 편이다.

충전은 쉽다. 차 앞머리 덮개 밑에 숨겨진 충전 케이블을 일반 가정용 220V 소켓에 꽂기만 하면 된다. 3.5시간이면 완충된다. 고속으로 달리면 주행 가능거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불안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부 공인 상온 복합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60km이며 최대 80km까지 주행 가능하다.

트위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500만원짜리 어른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 훌륭한 배달용 차량이나 도심형 이동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 ‘레드 닷 디자인상’ 최우수상 등 2관왕

현대 사운드, 전용서체로 브랜드 정립

현대차가 국제적인 디자인 관련 시상식인 ‘레드 닷 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차는 ‘레드 닷 디자인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현대 사운드’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전시체험공간’이 분야별 최우수상을, 현대차 전용 서체인 ‘현대 산스’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내 ‘키네틱 스컬프처’, ‘식음공간’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레드 닷 디자인상은 독일의 ‘iF 디자인상’, 미국의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린다.

현대차는 명확한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로고, 컬러, 이미지 스타일 및 그래픽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 상반기 현대차만의 전용 사운드 ‘현대 사운드’와 전용 서체 ‘현대 산스’를 완성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최근 제품 디자인 외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객이 현대차를 접하는 모든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펫 트렌드를 한눈에” 멍이랑 옹이랑 오세요~

올해 하반기 펫박람회·행사는

서울펫산업박람회·코펫·동물영화제 등
국내외 업체 참가해 다양한 상품 전시
반려동물 예절 교육 교양강좌도 진행

펫

“우리 멍멍이와 야옹이랑 갈 데가 없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의 하소연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590만 가구에 이른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전체 가구의 30.9%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 하거나 갈 곳에 대해 마땅치 않아 한다. 이들에게 펫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개성있고 깜찍한 상품도 구할 수 있는 박람회와 관련행사를 추천한다. 대부분 반려동물과 동반입장이 가능하나, 반려동물에게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케이지에 넣어 다니는 것도 좋다.

●2017 서울펫산업박람회(www.petseoul.co.kr)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B홀 전시관에서 열린다. LG, 현대백화점, 하림, 서울우유, 인터파크 등 국내 대기업과 펫페이스, 에어버기, 아크피앤씨, 오션, 카라즈, 펫모닝, 무무트, 노아샵 등 국내외 150여개 업체들이 참가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수의사들을 초청해 반려동물 돌보기 요령, 반려동물 예절 교육 방법, 고양이에 대한 이해와 관리 등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교양강좌도 진행한다. 또한 펫서울

2017 서울펫산업박람회 포스터

홍보대사로 드라마 ‘아이리스’에 출연했던 연기자 김혜진이 참여하는 ‘스타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전시회’와 국내 최고 영모화(翎毛畫) 작가인 김종선 초대전도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입장료는 1만원이다.

●제22회 코리아펫쇼(코펫 2017·www.kopet.com)

9월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한다. 더페어스가 주최하고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애견협회, 한국펫소매협회, 펫가든, 장보는 강아지와 고양이, 몰리스펫샵이 후원한다. 반려동물 식품, 약품, 미용·패션용품, 애견가구, 도그쇼 용품 등과 훈련설비, 캠핑용품, 애견장, 스마트 cctv 등의 설비·장비류 분야 상품이 전시된다.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의 애플리케이션, 병원, 쇼핑몰, 대학학과, 애견보험 등의 관련 상품도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입장료는 중학생 이상 일반인 8000원이다. 미취학아동,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는 무료입장 가능하다.

●제3회 우쭈쭈내새꾸마켓(blog.naver.com/woojoojoobaby)

9월16일 서울 서초구 비트빌딩 지하1층에서 하루만 열린다. 소자본 업체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핸드메이드 용품·소품 마켓이다. 수작업 아이디어 상품이 많다. 우주라익썸시바(디자인문구·도자기), 코숨(폰케이스 주문제작), 지우카페(뜨개 모자·뜨개 소품), 묘한인연(이불·방석), 아뜰리에솔(캐리커쳐·피규어 소품), 마뇨팩토리&창메이드(스티커·악세사리), 하치의작업실(캐리커쳐·고양이 피규어 소품), 별고양이네(고양이의류·장난감)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소자본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당일 11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3000원이다. 15kg 미만 반려동물과 동반입장 가능하다. 이동가방, 목줄, 하네스, 기저귀를 갖춰야 한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9월15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시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공식 동물영화제다. 올해로 5회째다. 단순히 동물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가 아닌, 반려동물과 진솔한 교감을 나누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야외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이색적인 동물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반려산업전, 반려동물 상담실, 도그쇼, 반려동물 아카데미 등이 펼쳐진다.

●제5회 2017 부산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www.bicas.co.kr)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 BEXCO 제2전시장 A·B·C홀에서 열린다.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펫 관련 상품이 전시된다. 관상어 시장 발전과 관상어를 키우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 박람회장에 관상어존을 구성할 예정이다.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유기동물후원행사도 진행한다. 입장료는 5000원이며, 9월29일까지 사전등록 신청하면 3000원이다.

●2017 경남 반려동물 박람회(www.ilovepets.co.kr)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창원 세코(CECO)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관람료는 5000원이지만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펫츠플레이트 닭가슴살홀릭도 증정한다. 사전등록 마감은 10월10일까지다. 8월25일까지 박람회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제3회 광주펫쇼(G-PET 2017·www.g-pet.co.kr)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호남 최대규모 반려동물용품박람회로 100개 업체 200부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5시30분까지 해야 한다. 중학생 이상 일반인 입장료는 5000원이다. 온라인 사전등록하면 3000원이다.

그 밖에 대전반려동물문화축제는 10월28~29일 대전엑스코시민광장에서 열린다. 2017 케이펫페스티벌 송도는 9월15일부터 1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2017 케이펫페어 일산은 11월24일부터 26일까지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네슬레 퓨리나, 창립 123주년 기념이벤트

롯데네슬레코리아의 반려동물 사업 부문인 네슬레 퓨리나가 창립 123주년을 맞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퓨리나 원, 알포, 프리스키, 캣차우, 팬시피스트, 타이디캣 등 네슬레 퓨리나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을 찍어 1688-4698로 문자 발송(발송료 응모자 부담)하면 된다. 롯데마트에서는 10일부터 30일까지, 홈플러스는 17일부터 9월6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마트에서 응모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이슨 청소기(1명), LG 공기청정기(3명), 유펫 우주선 가방 이동장(10명)을 증정한다. 홈플러스에서 응모한 고객에게는 다이슨 청소기(1명), 펫 유모차(5명), 발세척기(20명)를 추첨 증정한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지난 123년간 네슬레 퓨리나가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반려인에게 필요한 경품들로 준비한 만큼 많은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유기견 분양 상담 행사 열어

서울시는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을 10월까지 실시한다. 유기견 입양을 고려 중이라면 입양 상담도 가능하고 가족의 성향에 맞는 강아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장충단공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토요일에 산책행사를 진행 중이다. 평일은 낮 12~14시에, 주말에는 낮 12~16시까지.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산책하는 동안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유기견 입양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에는 책임 입양비(5만~10만원)를 해당 시민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책임 입양비는 전액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매회 산책행사에 참여하는 유기견은 10여 마리로 사전에 건강 검진과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정용운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